

Choengansa - Buddhist Temple

천간사

Project Team | Kim, Jung-bum · Lee, Moo-hee · Son, Chang-kil · Ju, Yong · Im, Je-cheul · Rah, Kyung-hyun
 Client | Cheongansa
 Location | Seoul Eunpyeong-gu Bulkwang-dong 8-224
 Site Area | 2,098.00 m²
 Building Area | 585.17m²
 Gross Floor Area | 1,082.37m²
 Building to Land Ratio | 27.89%
 Floor Area Ratio | 42.49%
 Structure | Korean Traditional Wooden Structure + RC
 Structural Engineer | TaiSan ENG. Co. Ltd
 General Contractor | Samgong Construction co. ltd(General Constructions)
 Sung-ik Construction co. ltd(Traditional Architecture)
 Building Scope | B1, 3F

Finishing Materials | Granite

Photographer | Hwang, Jin-soo

Cost | not disclosed

Major Carpenter | Lee, Yon-hoon

Stonemason | Ahn, Bae-keun

Roof Tile Craftsman | Sung, Young-w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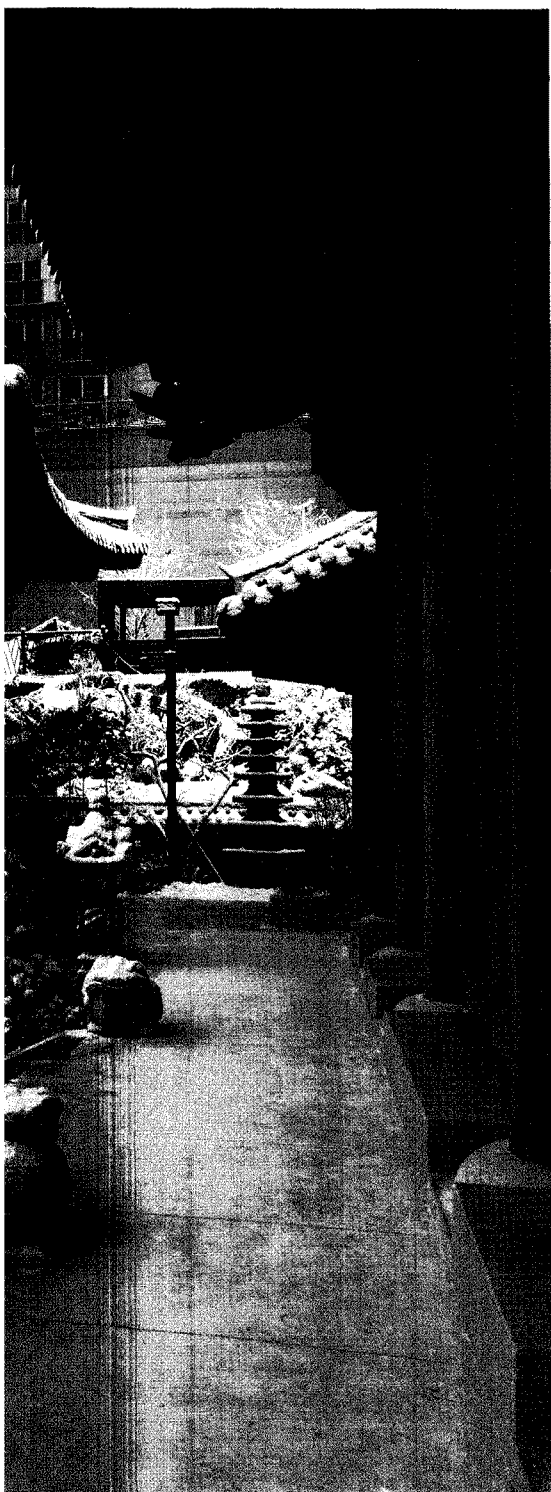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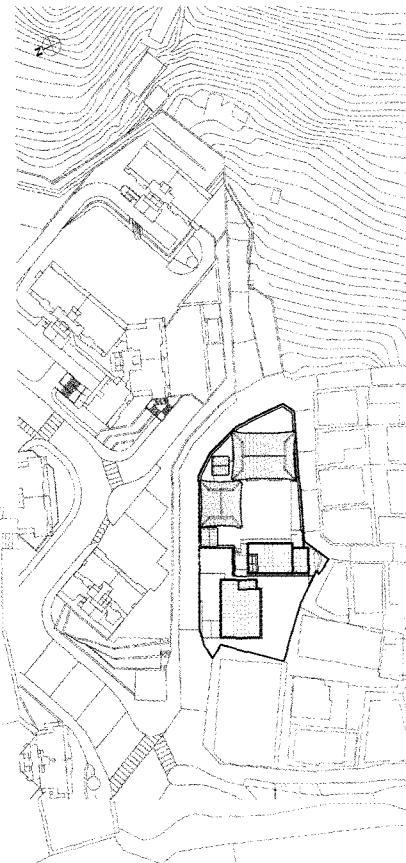
Plasterer | Kim, Jong-bin

Minor Carpenter | Lee, Boo-s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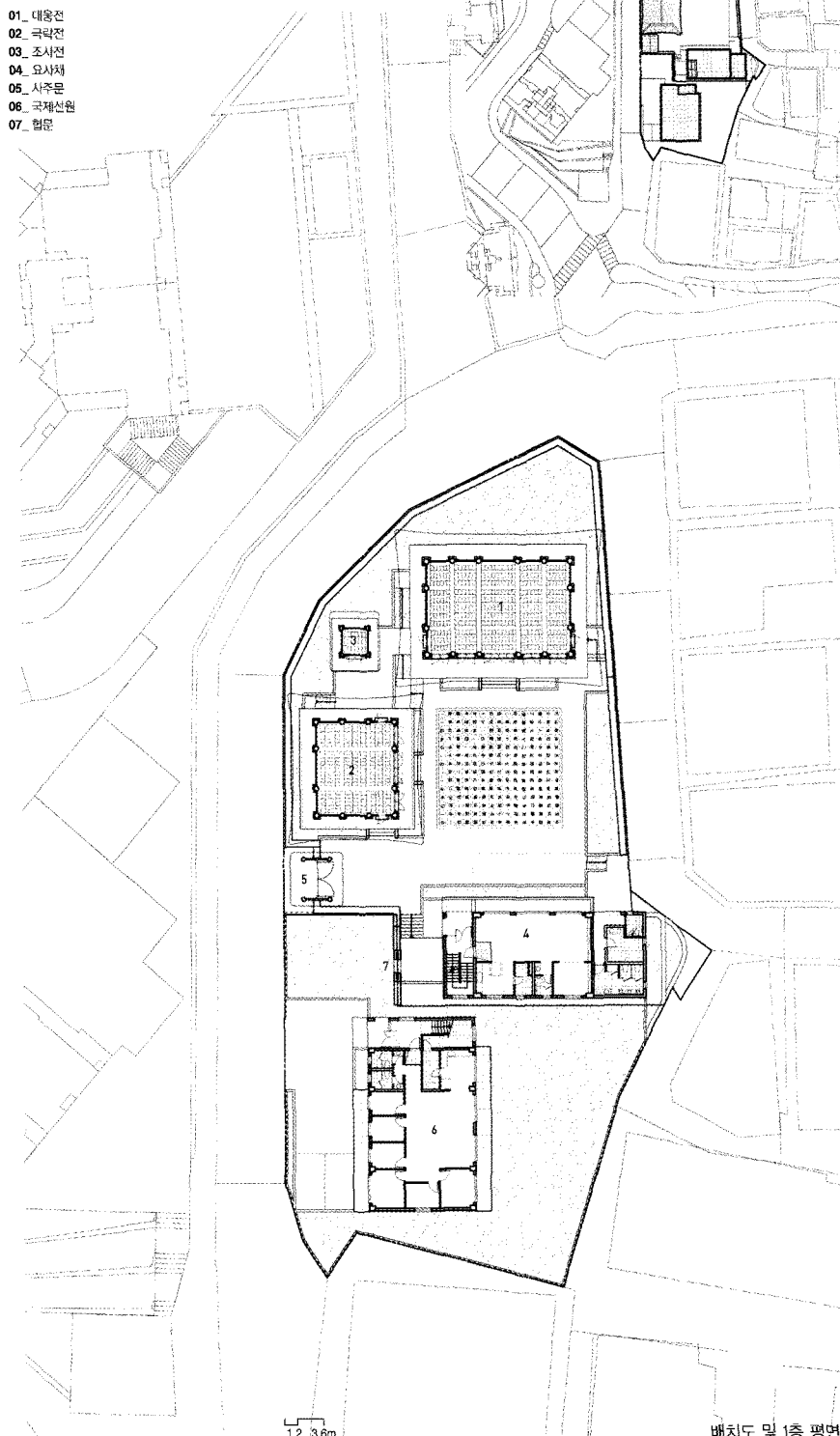
Buddhist Altar | Oh, Dong-yeol

조인숙 — 정회원 건축사사무소 다리건축
 Architects — Cho, In-souk, KI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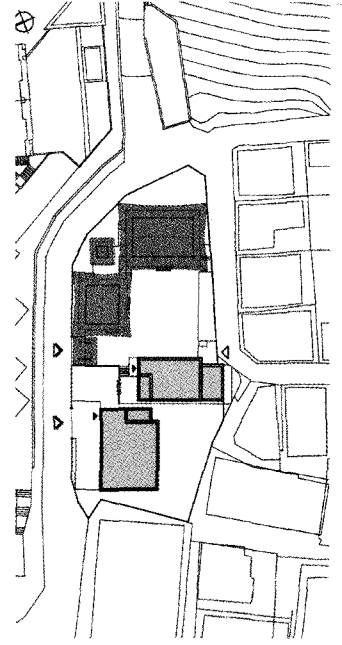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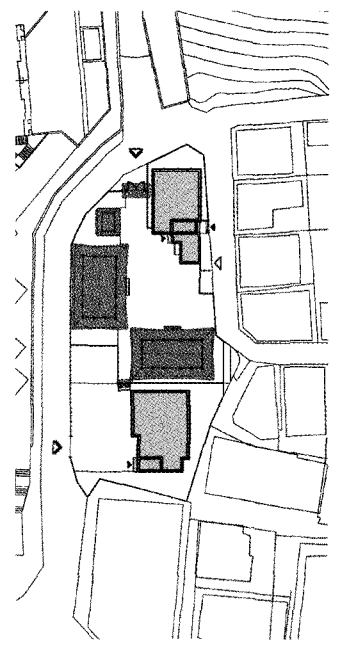
- 01. 대웅전
- 02. 극락전
- 03. 조사전
- 04. 요사채
- 05. 사주문
- 06. 국채선원
- 07. 협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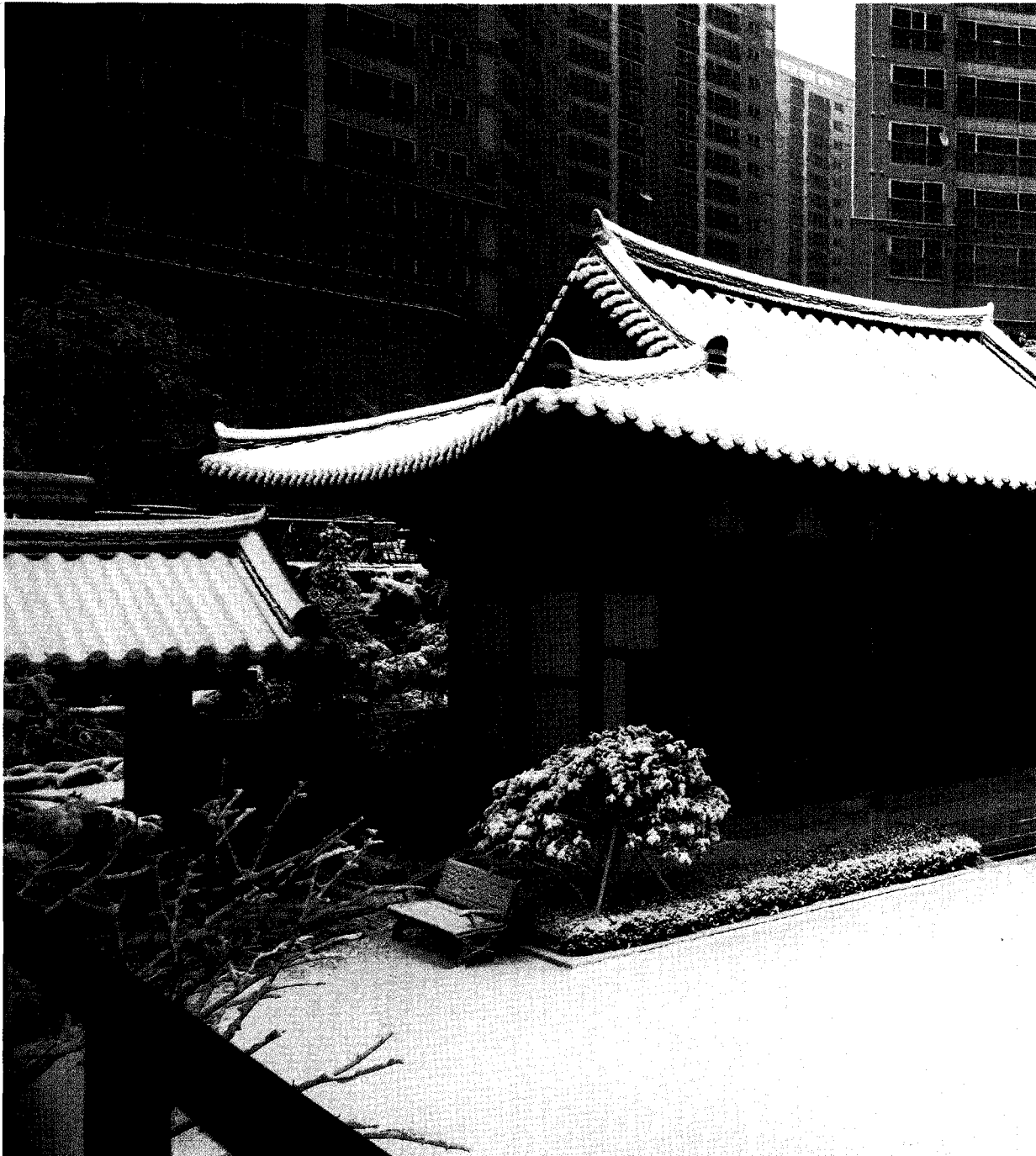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변경후 배치도



변경전(Y사 설계) 배치도



천간사 천간사(주지 일명, 1960년 이범은 스님 장간)는 1966년 이래 불광동 17번지 북한산 한 자락 주택가에 조용히 있었다. 불과 50년도 안돼 공동주택 재개발 열풍에 밀려 2009년 철거 수용되어 그 일대에 새로 조성한 아파트 단지 종교시설부지로 신축이전을 한 (재)대한불교 일동 선교종 사찰이다.

일동선교종은 석가모니불을 교조로,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하며 석가모니의 자각각각 각행원만(自覺覺地 覺行圓滿) 자신도 깨닫고 모든 중생도 함께 깨달을 수 있도록 교화하는 것과 깨달음과 수행을 원만하게 이루는 것의 근본교리를 받들고 직지인심, 건성성불, 전법도생(直指人心 見性成佛 傳法度生)이 종지(宗旨: 종단이 근본으로 삼고 있는 교의와 취지)다. 소의(所依) 경전은 금강경과 화엄경, 전등법어(前) 하나 기타 경전의 연구와 염불, 지송 등은 제한하지 않는다. 참고로 근본교리와 종지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같다. 한편 조계종은 도의국사를 종조로 하고 한국불교 태고종은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한다.

설계의 주안점 2009년 다리건축이 감리만을 의뢰 받았을 때는 풍수전문가가 정해준 건물의 배치 등을 바탕으로 설계가 완성되어 이미 허기가 난 상태였다(Y사 설계, 변경전 배치도 참조). 또한 건설비와 완공해야 하는 시점이 정해져 있었고 건설업체까지 거의 결정된 상태였다. 설계비는 이미 완납되어 더 이상 지출할 예산조차 없었고 애초의 설계자 Y씨는 본인의 작품이라고 설계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불전(主佛殿)인 대웅전을 25층 아파트 모서리 앞에 놓고 예불을 하게 할 수는 없었다. 또한 요사채와 불전을 한 공간에 넣을 때의 위계를 생각해야 했고 경사진 진입도로나 성도된 땅에 대해 고려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토목비를 줄여야만 했다. 이 설계의 주안점은 배치와 토지이용이다. 그리고 주위환경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건물 및 외부

공간의 위계나 관계에 역점을 두었다. 주변이 빈 땅이었을 때 최적의 풍수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서 위요될 때도 같은 조건일 수는 없다. 이미 톨로 분할되었고 고지치가 있는 대지에 대웅전과 극락전 및 조사전, 그리고 요사채와 국제선원을 기존설계의 규모 변동 없이 놓아야 했다. 대웅전은 위계가 가장 높은 곳에 산을 등지게 하고 요사채에서는 각 층에서 대웅전이 보이게 배치를 하여 건물과 마당 그리고 담장의 관계를 설정했다. 풍수상 취약하다는 부분은 창건스님의 조사전으로 비보(裨補)했다. 추녀나 사래 끝이 대지경계선을 넘지 않게 건물배치를 해야 했고 지붕용마루의 위계가 필요했다. 대지에 비해 큰 대웅전의 규모를 좀 더 줄여야 되는데 설득이 잘 안되었고 장애인 경사로 때문에 대웅전의 기단을 좀 높일 수가 없다 보니 극락전과의 위계가 확연하지 않아서 좀 아쉬웠다. 국제선원은 별도의 대문도 있지만 전각들과 유기적으로 통할 수 있도록 협문을 두었다. 요사채 및 국제선원은 아주 맛있게 설계함으로써 불전(佛殿)이 주(主)건물이 되도록 했다.

불전은 좁고 긴 장방형보다는 전후 좌우가 같을수록 예불공간으로 적당하다. 대웅전과 극락전을 합한 전체면적은 그대로 두되 두 건물을 위치와 규모로써 위계를 설정하고 좁고 긴 장방형으로 두 채가 똑 같았던 평면을 되도록 장방형에 가깝게 따로따로 재설계했다. 조사전은 한 칸(間) 규모로 바꾸어 규모는 작지만 비중은 큰 곳에 놓았다.

삼문을 갖출 여건이 안되어 입주문과 천왕문의 기능을 사주문(四柱門)으로 통합해서 문비(門扉)를 가운데 두고 네 개의 벽을 만들어 사천왕을 그릴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 문인 불이문(不二門)은 생략하고 대신 대웅전과 극락전으로 에워싼 마당에 의상대사의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 20자를 음각 바닥블록으로 계획하여 불이를 대신하고자 했다. 이는 7m x 30



줄로 된 화엄사상의 요체로 법(法)으로 시작해 불(佛)로 끝난다.

산에 의지해 개발한 고층 아파트를 작은 한국식 사찰이 위용 있게 건주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전통건축이 얼마나 당당한지를 알 수 있다.

건축공사 정신적인 주제는 전통목조건축인데 일반건축 시공사가 주 도급업체였다. 그러나 두 회사가 작은 돈으로 성심껏 공사를 했고 비교적 협조가 잘되어 원만하게 잘 끝났다. 배치에서 영역 구분이 되어 목조 건물과 일반건물이 동시에 건축공사를 진행 할 수 있었던 장점도 있었다. 도판수가 상당히 기교를 부리고 싶어 했는데 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수용했다. 전통부분 의 펜스나 문 및 조경이 조경회사에 별도 발주되다보니 설계자의 권한 밖이어서 건물을 살리는 조경이 아니라 수목을 열거한 결과가 되어 좀 아쉬웠다. 또한 공사비가 적어서 전통 담 정도 제대로 쌓지 못해 마치 물에 안 맞는 남의 결운을 입은 것 같지만 추후 예산이 확보되면 개·보수가 가능할 것이라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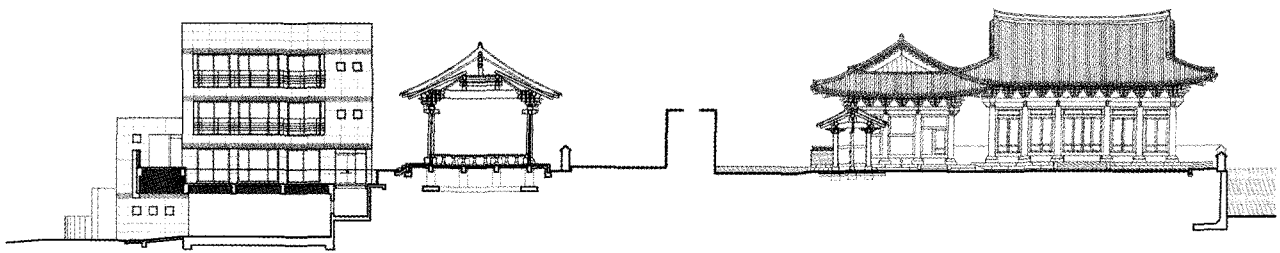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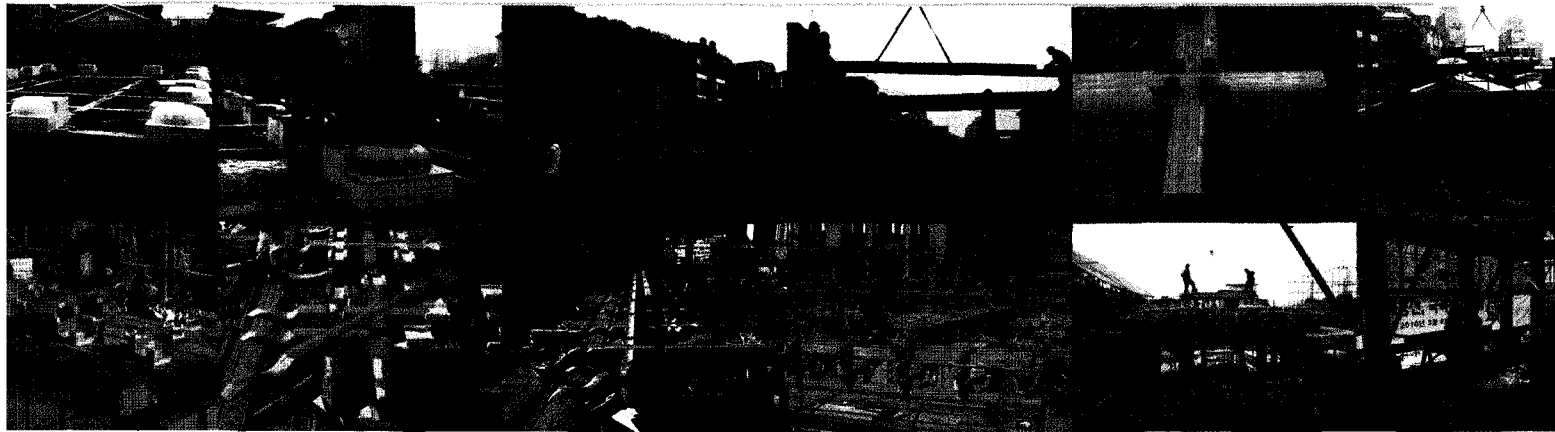
설계후기 불교사찰은 종교시설로 분류되며 건축법상의 용도에도 그렇게 구분되어 있다. 개인적으로 사찰은 교육 및 연수시설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 이유는 신앙을 중심으로 내세를 향해 기원하기 위한 성당이나 교회와는 달리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는 곳인 불교사찰들은 그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서 공양하고 현재의 삶에 적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교사찰에서는 부처님을 상징하는 불전. 그 가르침으로 대변되는 경전에 관련된 공간과 출가해서 수행하는 스님들의 공간, 그리고 재가 불자들의 수행 및 만남의 공간 순으로 건물의 위계가 있다.

전통목조건축을 지을 때 대개는 도판수나 석수, 기와장 등 장인들에 너무 의존한다. 그러나 장인의 몫과 건축사의 역할은 다르다. 건축가가 전체에서 부분까지, 자방 가구(架構)뿐만 아니라 첨차의 디자인이나 이음·맞춤의 결구(結構) 및 청호와 그 철물까지 상세설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조경이나 단청까지 건축가의 몫이어야 전체가 조화로운 건물이 될 수 있다. 또한 전면일괄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규정은 전통건축인 사찰 등에는 적용되는 방식이 달라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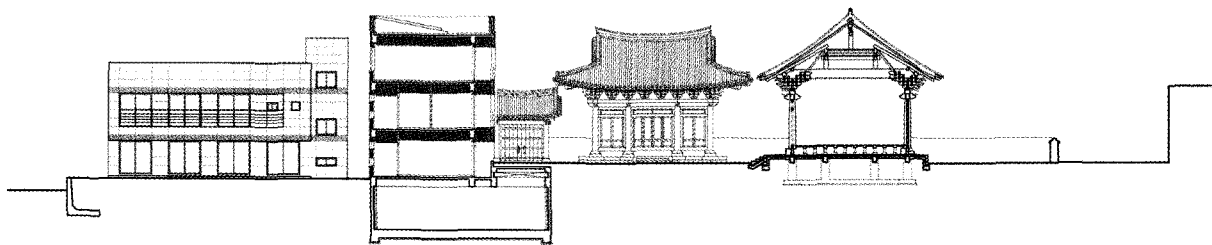
Cheongansa

The main idea of this project lies in the arrangement of the building and the land-use. Architecture, Courtyard and Enclosed wall define their own Temple compound. Focus of the design i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eighbourhood and nature as well as hierarchy of the buildings inside the compound: the main Hall - the Paradise Hall - other facilities. The weak part of land in the Pungsu (ch. Fenshui) theory is compensated by the founding monk's Hall which is small but powerful building. Narrow gate leads to the main Hall compound from the International Seon (Jap. Zen) Centre. Simplicity of the residential building and international Seon Centre give great importance to the main Buddha Hall. Uisang's Ocean Seat of Hwaem (ch. Huayan) Buddhism is designed in the courtyard for the monks and laypeople to practice the teachings of Buddh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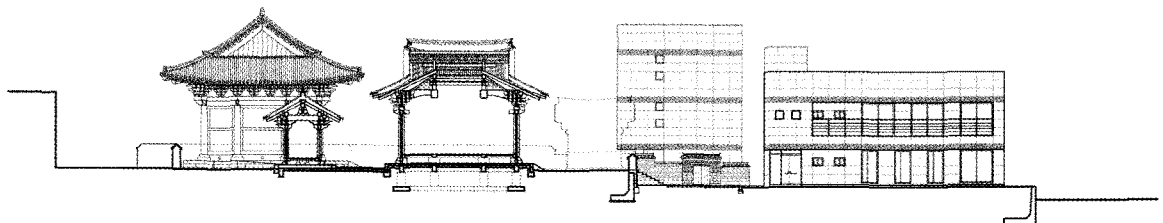


대지 종단면도 -1

대지 종단면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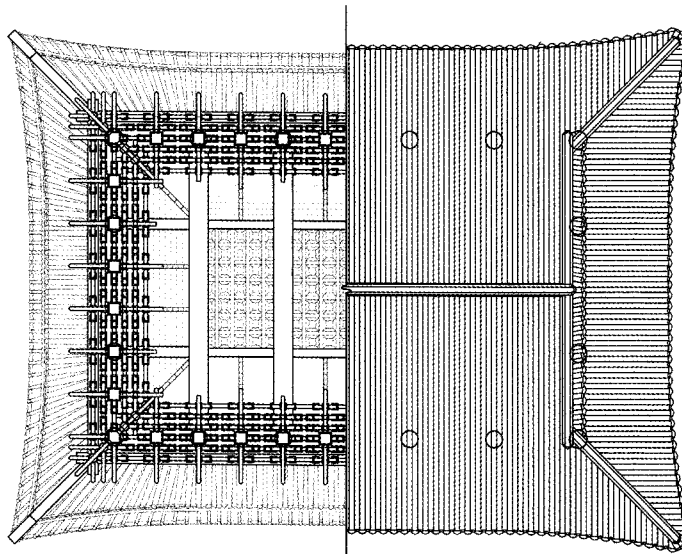
대지 횡단면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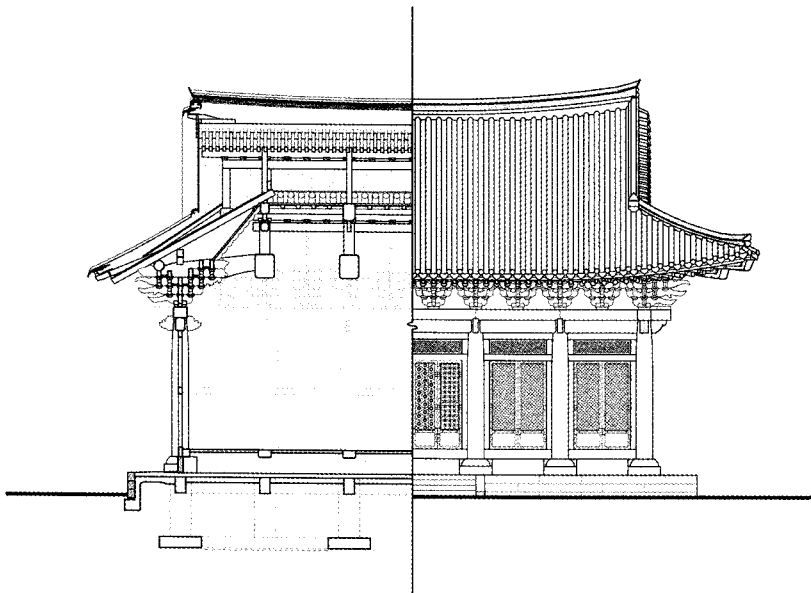
대지 횡단면도 -2

1.2 3.6m





대웅전 앙시도 및 지붕평면도



대웅전 횡단면도 및 정면도

